

## 호스피스에서의 영성적 돌봄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이 동 익

시작하면서

1960년대부터 영·미 지역에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호스피스 활동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을 올바른 의식을 통해 수용토록 도와줌으로써 환자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간성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극도로 치닫고 있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의료 기술의 영향으로 인간이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에 희망을 던져준다.

호스피스 활동은 결국 인간으로서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주된 활동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 도움은 물론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들까지도 포함한다.

### 1.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호스피스 활동의 초점은 결국 환자의 눈앞에 다가온 죽음과 그 죽음에 따르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모아진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죽음은 실상 선하신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따라오는 형벌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이었고, 또한 고통 그 자체였다. 살아계신 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적대적 두 실재의 동일한 기원이 될 수 없고 또한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그릇되게 이끌어간다. 죄인은 삶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앞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2고린 5,15) 받아들이고 생활한다. 죄인은 하느님 없이, 또는 하느님을 거슬러 자기 스스로의 충만한 삶을 열망하고 그 삶을 실현시키고자 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종말에 가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오만불손했으며 또한 얼마나 자신만을 과신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성서는 이처럼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은 죽음을 향하는 삶이며, 이러한 삶의 모습은 비구원과 죽음의 세력이 가득찬 영역에서 드러난다.

죄인은 쾌락이나 부, 성공, 권력 등을 소유함으로써 삶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죄인을 죽음의 심연으로부터 구원해주지는 못한다. 죽음은 이렇게 의미를 거스르는 삶의 단절로 어떻게 체험되고 있다.

약삭빠르게 시의에 편승하며 세력을 장악하고 재화를 소유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의 삶을 꾸러가는 사람에게서, 그의 실존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오래 고수해야만 하는 하나의 소유물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손실이란 무조건 소유하고자하는 원의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어난다. 삶 속에서 자신을 폐쇄시키거나 충분히 개방시

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서 하느님을 매우 가까운 분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으로부터 벗어나 소원하고 비껴가는 '죽은' 하느님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죄인의 죽음 체험, 즉 우리 모두의 죽음의 체험은 죄에 의하여 철저히 규정되어 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중립적'이 아니라 지상 생애의 시간적 결말이며, 더 이상 하느님과 복된 생활에 이르러 단순한 통로로서가 아니라 위협과 공포를 안겨주는 그 무엇으로 체험된다. 따라서 무한히 위대한 신적 생명 안에서 삶을 마치려는 신앙과 희망과 사랑 없이는 삶은 결국 단절될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무의미하고 어두운 단절로서, 의문투성이이고 위협스러운 인간을 공포 속으로 휘모는 무시무시한 실재로 체험된다.

###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인간적 죽음

이렇게 체험되는 죽음은 분명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병상에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혼자서도 죽음을 대면하는 성숙에 도달하게 된다. 무릇 인간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한 인간의 생을 개화시키는 모든 가능성들을 그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소진한다는 의미이다. 죽음 및 죽음의 준비가 하나의 금기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생애의 이 종국적이고 위대한 대결을 속수무책으로 맞는다. 그래서 죽음이 그들을 현실에서 도망시키고, 실제 세계에서 인간을 완전하게 결별시키는 악으로 나타나며, 죽음에 수반되는 모든 현상 예를 들어 이 세상과의 하직, 가족, 친지들과의 영별,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모든 일을 한꺼번에 잃어버린다는 상실감 등의 고통들이 여태껏 걸어온 삶을 마치 허구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가해하고 저주스러운 숙명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눈앞에 둔 임종 환자의 병상을 함께 지켜줄 벗이 필요하다. 벗이 곁에 있음으로 해서,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하여 마음을 나눌 상대가 생기며, 인생의 무대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일이 없게 되며, 죽음이 제아무리 고통스럽고 불안에 찬 체험이라 할지라도 기만과 환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진정 어린 동정, 자기 심중에서 들끓는 반항심과 투쟁, 곁에서 들려주는 죽음이라는 신비로운 실재에 관한 해설 등에 에워싸여 환자는 홀로 죽음의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다. 이러한 성숙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생 처음으로 도달하는 인간 성숙일지도 모른다.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생존권 만큼이나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임종을 돕는 권리도 생존을 돕는 권리만큼 존중되어 임종자에게 필요한 것이 제공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의 병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기 생애의 최후 순간을 가능한대로 뜻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 인간적 죽음

문제는 인간적 죽음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따라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죽음으로 운명지워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같은 조건에 처해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존재이며, 또한 그 “죽음” 속에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서 불리움을 받았으며, 또한 양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책임감을 가지고 인간됨을 실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한 (죽음까지도 살기 위한) 존재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적 품위”를 지니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 존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거절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런 의미에서 품위를 지닌 죽음이란 인간 생명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고, 또한 완전하게 되는 순간으로서의 평화로움과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책임감있는 자유와 의식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나아가 각자의 고유한 삶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이란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 존엄성을 지니는 죽음이어야 한다. 사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에의 참여, 지상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리고 인간들의 집에서 성부의 집으로의 이동을 죽음 안에서 발견하고 있다. 이는 죽음에 대해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하나의 신앙이다.

여기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대한 정당성, 아니 그보다는 그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기본적인 윤리 원칙으로서 죽는 과정의 고유한 인간적 영역을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적인 그리고 그리스도적 품위를 지니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줌을 의미한다.

### 인간적 죽음을 방해하는 고통

말기 환자가 인간적 품위를 지니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다. 죽음이 생명 전체를 요약하면서 평화로움과 용기,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있는 자유와 의식을 통해서 수용되어야만 한다면 임종환자에게 늘 따라다니면서 인간적 죽음을 방해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 그 고통이 육체적인 것이든 혹은 정신적인 것이든 이 고통으로 인해 환자는 인간성의 가장 확실한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제한 당하게 되며 이렇게 제한된 자유와 의지는 말기 환자가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인간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비오 12세 교황이 “고통은 장기적으로 보다 큰 선과 이익의 성취에는 방해가 된다”(국제 내과. 외과 의사 총회에서 한 훈화, 1957년 3월 24일, AAS49(1957), 136쪽)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고통은 인격의 온전성의 측면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로울 수가 있다. 고통이 너무 클 때에는 정신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고통을 경감시키고 제거하는 행위는 정당하며, 따라서 고통을 의료적인 통제하에 두는 일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 임종자와의 인간관계 : 진실을 알 권리

이제 정신적인 고통의 극복에 관한 문제를 말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먼저 임종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병에 대하여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호스피스 활동이 말기 환자의 인간적 죽음을 준비시켜주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죽음이란 그것을 애써 회피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다. 비록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죽음이 가까이오면 완전한 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준비는

아직 건강이 좋을 때라고 할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임종의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족과 원목신부, 의료 담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이 의무에 참여할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실행은 환자의 상태와 그의 대인관계 능력에 따라 각기 경우가 다를 수 있다. 한 줄기의 희망은 분명히 있다고 환자에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며, 죽음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죽음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감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 영성적 돌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극복을 위한 주위의 도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환자가 이미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환자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도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에 있다고 할 때 이제 그 환자를 위한 결정적인 도움은 죽음이 몰고 오는 두려움과 단절, 상실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일 것이다.

우선 원목자의 임무는 매우 중대하다. 원목자는 환자로 하여금 차근차근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종의 특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특전적인 역할은 환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요구하며, 이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이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점차적으로 환자의 마음을 열게함으로써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바깥으로 끌어내어 환자 자신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목자는 병원 내에서 그의 정당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원목자의 환자에 대한 의견 제시는 언제나 병원내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환자에게는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목자는 아니라도 말기 환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 곧 친지나 가족, 병원 봉사자들이 환자에게 가져야 할 몇 가지 관심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매우 고독하다고 느끼고 있다. 자신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멀어져 갔고 자신의 주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 이렇게도 철저히 고독하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모든 관계의 단절을 체험하면서 스스로가 철저히 소외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돕는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와 함께 있어주고, 기다려 주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도움일 것이다. 손을 꼭 잡아주고, “힘드시죠?”라는 말 한마디가 환자의 고독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현재 당신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환자가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야말로 큰 도움이다.

말기 환자의 특징 중의 하나는 누구인가를 늘 찾는다는 점이다. 간호사를 찾고, 의사를 찾고, 가족, 친지들을 찾는다. 인간의 특성중의 하나가 ‘궁핍한 존재’이듯이 말기 환자는 어쩌면 인간의 그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이며, 자기 자신으로써 충분한 존재가 아니다. 사회를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모습이다. 이러한 평범한 인간적 관계가 말기 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언가를, 또 누구인가를 항상 찾는 말기 환자의 처지에 관심을 갖는 주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의 한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환자를 자주 방문하는 것이다. 잦은 방문은 환자 스스로 막아 놓았던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한다. 그럼으로써 전혀 말을 하지 않던 환자가 조금씩 말문을 열어놓게 된다는 것이다. 방문자는 말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환자에게 말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다림이 곧 잦은 방문이다.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이다. 서로의 통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존재이다. 곧 나는 너와의 관계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곧바로 '우리'라는 관계를 지향한다. 이 '우리'라는 개념은 너와 나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지되는 개념이다. 곧 상호 교류의 관계 안에서 '우리'라는 개념이 성립되는데 이 개념은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확인된다. 이것이 인간 관계이며, 이는 인간의 본성적 특성으로서의 상호교류적 특성이다. 이 특성은 인간 서로를 결속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을 갖추게하는 역할을 갖는다.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환자와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병원 봉사자들의 말 한마디에서 환자들은 용기를 가지며 밝은 얼굴을 가질 수도 있다. 환자들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움추려있는 환자는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다가 '우리'라는 관계를 느끼게 될 때에 자신이 처해있는 상태에 대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험난한 과정은 시작되며, 결국에는 두려움이 극복될 것이다.

## 마치면서

임박한 죽음은 삶에 깊이를 부여한다. 만일 죽음의 경계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삶은 피상적이 되고 방향을 잃게 될 것이며, 책임의 의의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임종 환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죽음은 이제 종말과 단절이 아니라 완성과 희망이 되는 것이다.

호스피스 활동이 이렇게 종말과 단절을 완성과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한 가운데에 있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의 예술이며, 이 예술의 핵심은 죽음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의미에 대한 교육일 것이다. 실상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는 죽음에 대한 의미깊은 현상과 또 다른 해답을 주는 긍정적인 시사들이 있다. 곧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험에서부터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이 인류의 삶 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인간의 삶 속에서도 역시 우리는 자유, 행복, 삶,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갈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든 무한을 체험하며,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무한한 그 무엇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를 체험하고 이를 뼈아프게 느끼는 사람은 이미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죽음을 한계로 뼈아프게 느끼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피안에서 있는 그 무엇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는 무한성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것이 곧 인간 실존의 한 모습이며, 말기 환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러한 인간 실존을 되찾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르는 죽음은 결국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의 인간적 실존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인간성 회복 운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문제 I-II, 사목 78호(1981/12) 30-40쪽, 사목 79호(1982/1) 41-49쪽.
2.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현장,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개정판) 60-69쪽.
3. 이동익. 생명의 관리자,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개정판), 233-283쪽.
4. B. Häring, Medical Ethics, Slough, St. Pauls 1991(3ed.), pp.113-141.